

# 해외건설 '순항' - 연간 700억 달러 수주 무난할 듯

- 상반기는 300억 달러 안팎 규모, 아시아 지역 수주 본격 확대 예상 -

김 태 업 | 해외건설협회 정보기획실장

**지**난 6월 19일, 수자원공사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는 태국 물관리 사업의 가격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방수로와 임시 저류지 건설을 주내용으로 하는 총 53억 달러(6조 1,000억원) 규모의 동 사업은 정식 계약 체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예정이지만 이날 가격 협상이 끝남에 따라 향후 수주 확대 기대감을 고조시키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 상반기, 아시아 수주 본격 확대

수주 금액도 연초부터 순조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3년 해외건설 수주는 6월 21일 현재 전년에 비해 16% 증가한 261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전체적으로는 2007년 이후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 급증을 실질적으로 견인해 왔던 중동에서의 수주가 예년에 비해 많이 감소한 반면, 아시아에서의 수주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아시아에서 110억 달러를 수주하여 작년 59억 달러에 비해 87%나 증가했으며, 58.5억 달러의 호주 로이힐 철광석 프로젝트를 수주한 태평양·북미 지역에서도 전년 대비 수주가 급증했다. 반면, 매년 전

체 수주의 60% 내외를 차지해 오던 중동에서는 수주가 전년의 절반 수준인 81억 달러에 그쳐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의 77.8억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공사들의 계약이 곧 반영될 예정이어서 수주 금액도 조만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는 수주 예정 공사의 협상이 지연되면서 각각 2.7억 달러 및 8,000만 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중별로는 호주 로이힐 프로젝트 수주에 힘입어 토목 공종이 85.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2.8배 증가했으며, 플랜트 공사도 60% 이상 늘어난 136.7억 달러를 수주하여 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작년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공사 수주와 함께 101억 달러를 기록했던 건축부문에서는 이렇다 할 대형 프로젝트가 없어 수주 금액이 29.2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 연간 700억 달러 수주 무난할 듯

상반기 수주 금액은 전년과 비슷한 300억 달러 전

## 특집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후에서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태국 물관리 사업을 포함하여 현재 계약이 확실시되고 있는 260억 달러를 포함하여 총 1,500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의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 2013년 전체로는 연초 전망했던 700억 달러 수준의 수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최근 1/4분기 실적 공시 과정에서 해외건설의 수익성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일부 업체의 경우 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수주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돌발 악재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국가들의 건설경기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동남아와 중남미 등의 발주 추세에도 특이 동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동에서는 기 진출 업체들과의 경쟁에 더해 최근의 엔저 및 유로화 약세에 따른 일본, 유럽 기업과의 추가적인 경쟁 심화가 예상되지만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수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에서 대규모 발주가 지속될 전망으로 연말경 쿠웨이트 정유소 개선사업(110억 달러)과 신규 정유소 건설사업(140억 달러)의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중동에서는 석유·가스에 집중된 에너지원 비중을 천연가스로 확대하고 있어 향후 5년 간 680억 달러 규모의 가스 프로젝트가 추진될 계획이다. 한편, 미국의 이란 제재 강화와 리비아 정식 정부 출범 지연 및 이라크 국내 정세 불안 장기화 등이 우리 기업의 수주에 미치는 영향도 당장에는 미미한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건설시장은 2011년부터 2년 연속 연간 200억 달러 가까이 수주하면서 해외건설 수주의 큰 축으로 부상했다.

특히, 올해는 6월까지의 실적이 100억 달러를 넘는 데다 하반기에도 그 이상의 실적이 예상됨에 따라 사

상 처음으로 200억 달러 이상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력이 미미한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서 발주가 확대될 전망이며, 태국, 미얀마 등의 대형 인프라 정비사업 발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앙아시아에서도 석유화학, 정유공장 등 다운스트림 설비투자 확대와 함께 2017년 카자흐 EXPO와 우즈베크 도로 확장 및 가스화학 플랜트 추진 계획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도에서는 제12차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공사 발주가 증가할 예정되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에서도 도로, 발전 등의 민자사업 추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남미에서는 유로존 의존도가 높은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 인프라 시설 발주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의 산유국에서 정유공장 및 가스처리 플랜트 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페루, 칠레 등도 전력 수요 증대로 인한 발전 플랜트 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장 다변화를 추진 중인 우리 업체들의 수주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건설시장은 5~6% 수준의 견실한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주요 차관 공여국인 선진국 경제가 다소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인프라 발주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석유·가스, 광물 등 천연자원 보유국을 중심으로 건설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여서, 나이지리아, 가나 등의 산유국과 DR콩고, 남아공 등 광물자원 보유국을 중심으로 공사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신흥 가스 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모잠비크에서 철도, 도로, 발전소 등의 공사 발주가 확대되고 코트디부

아르 등에서도 민자 발전소 건설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통적 강국인 유럽과 중국 업체들이 이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 진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중국, 일본 등이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공격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2조 달러가 넘는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경우 2011년에만 16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했고, 앞으로 3년 간 200억 달러의 차관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원·건설 관련 국영기업이 현지 인프라 공사를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역시 대규모 자금 동원력을 앞세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향후 5년 간 1.4조엔의 ODA를 포함해 민관 합동으로 3.2조엔 규모의 동아프리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미얀마에 대해 대일 부채 2,000억엔 탕감, 910억엔의 ODA 제공 계획을 밝혔으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및 1조엔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 전개 촉진 프로그램'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도 최근에는 유럽 업체들도 재정위기로 어려워진 자국 시장을 벗어나 해외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어 가격 경쟁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해외건설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해외 건설 시장에서는 투자 개발형 사업이나 시공자 제공형 사업 발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우리 업체들은 아직 수주의 90% 이상을 가격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도급형 공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얼마 전 주요 기업들의 1/4분기 실적 공시 과정에서 일부 해외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해외건설의 수익성 전반에 부정적인 시각이 제기되기도 했다.

가격 경쟁 심화에 더해 우리 업체들이 2008년 이후 단기간에 수주 물량을 급격히 늘린 것도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물량 위주의 수주 전략에 따른 무리한 수주와 함께 계약 이후 공사 수행 과정에서 기자재 조달이나 인력 동원 또는 현장에서 돌발 상황 등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것이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수익성·과당 경쟁 속제 풀어야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수주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었던 2012년 초와는 달리 2013년 해외건설 수주는 연초부터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다.

물론 현재도 여전히 유료존 국가들의 경기 전망과 세계 경제의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최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버냉키 의장이 그간 시행했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출구 전략을 언급하면서 세계 증시가 요동치기도 하는 등 어려운 대외 환경은 여전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 노력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수익성 악화나 과당 경쟁 문제 해결, 금융·인력·정보·기술력 등의 경쟁력 제고 등 정부와 업계가 함께 풀어 나가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